

丁酉再亂 포로 실기 속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

조용호**

— <차 례> —

1. 서론
2. 기억과 일기, 일기 속의 詩
3.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詠詩者의 의식 변화 추이
 - 1) 被擄 전후에서 일본 내 거류지 도착일까지
 - 2) 일본 억류 시기
 - 3) 석방(탈출)에서 한국일까지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유재란 시의 포로 실기에 포함된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을 고찰한 것이다. 방법상으로는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고, 그 기간에 지어진 시들에서 화자의 의식이 변모하는 추이를 살폈다. 대상은 일기 형태의 글에 포함된 시로 한정했는데, 그것은 실기에 포함된 시에서 화자의 기억이 가장 적게 굴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로 전후부터 일본의 거류지에 도착하기까지 지어진 시는 일부 인사들의 기록에만 나온다. 그 가운데 강항의 시에는 사적인 감상이나 고뇌는 최소화되고 담담하게 상황을 감내하는 절제심이 뚜렷이 나타났다. 정희득과 정호인이 피란 중에 쓴 시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도와주지 않는 자연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스며있다.

일본에 있을 때 지어진 시 가운데, 노인의 것에는 온전히 귀국하여 임금께 충성하고 일본에 복수하겠다는 의식이 드러난다. 강항은 일본에 억류돼 있을 때 지은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에서도 늘 충성심을 전면애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력이 훗날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을 예상하며, 환국한 뒤에는 조용히 은거할 생각을 드러냈다. 정경득 일족은 오직 생활하는 것만을 지상과제로 여겼다. 그들의 시에는 오직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의식만이 담겨 있다.

환국하는 과정에 지어진 시 가운데, 노인의 것에는 부모형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깊이 투영되어 있었다. 강항의 시에는 성은이 포로 신세인 자신에게까지 미친 데 대한 감개무량함과, 이로 인해 갖게 된 충성심과 절의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경득 일행은 돌아오는 과정에 대마도에서 6개월 동안이나 발이 묶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시에도 초조함과 절망감이 깊이 스며있었다. 특히 밤에 우는 새에게 실향인의 의식을 깊이 가탁하기도 하였다.

이런 방식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로자들의 삶과 의식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기 속에 기록된 편지 등의 산문이나 대화 자체만으로 피로자의 의식을 검토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과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제어 기역, 실기문학, 화자 의식, 간양록, 금계일기, 호산만사록, 월봉해상록, 정유피란기

1. 서론

문학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 상상력과 가치관이 결합되어 언어로 형상화된 정신적 구조물이다. 그것들 가운데 무엇이 독자를 가장 감동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지는 한 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작자의 생생한 경험이 깊이 투영된 문학일수록 독자에게 주는 감동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경험을 토대로 한 실기문학이라면, 독자로 하여금 더욱 감동스럽고도 흥미로운 독서를 하게 만들 것이다. 그 체험이 他發的이고 강제된 상황에서

겪은 것이었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 형태의 체험이 오롯이 담긴 글로 정유재란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들의 실기를 들 수 있다.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湖山萬死錄』(이하 『만사록』), 鄭希得의 『月峰海上錄』(이하 『해상록』), 鄭好仁의 『丁酉避亂記』(이하 『피란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실기들 속에는 포로가 된 채 가족과 동포의 처참한 죽음을 목격하고 갓은 핍박과 심신의 고통을 겪은 뒤 겨우 귀환한 지식인의 설움과 고뇌가 담겼다. 그러나 아무리 포로의 신분으로 괴로움을 겪었더라도, 이미 적국에서 연명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꺼림칙한 이력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자들은 본국의 관리나 주변 사람들이 혹시라도 품을 수 있는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사고와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었다. 일본인들을 이성적이고 정감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 그리는 대신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그들과 친교를 맺고 교류한 내용 등은 회색 또는 누락시킨 것들이 그런 흔적에 해당한다. 반대로 임금과 부모를 그리는 충효 윤리는 두드러지게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단지 경험한 내용을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살았거나 경유한 나라의 지리와 풍물과 인정물태를 따로 자료로 모아서 첨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포로 실기들에는 사후에 첨삭 변형된 내용들이 적잖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간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따라서 기왕에 여러 연구자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조망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¹⁾

상기한 5인은 모두 전남의 영광·나주·함평 출신의 사족들로, 일기에

1) 다음은 이런 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된 대표적인 실적물이다.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간양록』·『월봉해상록』·『정유피란기』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사연구』 54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기록된 정황상 피로 이전에도 서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노인은 1566년 생, 강항은 1567년 생, 정경득은 1569년 생으로 서로 가까운 친구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연배였다. 또 정경득과 정희득은 세 살 터울의 형제였고 정호인은 정경득보다 열 살 어린 족질이였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포로가 되었고, 일본에 억류되어 있던 시절에도 한 곳 혹은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였다.²⁾ 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들이 일본에서 보여준 행태나 귀국의 방법과 과정은 사뭇 달랐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록에 투영된 의식의 同異를 대비하여 보는 것은 자못 흥미를 끌 만한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포로 실기 가운데에서도 일기(형태의 글)에 수록된 한시를 검토하고, 피로인들이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을 지향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³⁾ 방법적으로는 전체의 시를 공시적으로 조망하여 의식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⁴⁾이 아닌, 시·공간의 변화과정 속에서 의식

2) 유채연, 「임진왜란기 피로인들과 그들의 기록」,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299~207쪽 참조.

3) 대상을 이렇게 한정한다는 말은 일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정희득이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가 피랍에서부터 귀환일까지 쓴 시들은 그의 『해상록』 제1권의 「海上日錄」에 들어 있지 않고 제2권에 따로 모아져 있다. 이런 편집 체제에서는 해당 시를 짓게 된 현장성과 상황성이 희석될 여지가 많고, 따라서 감정과 의식에 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정희득의 경우에는 그의 族姪인 정호인의 『피란기』에 수록된 시들과 「해상일록」만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의 의식의 알맹이가 더 분명하게 속살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이것은 장미경과 윤인현이 사용한 방법이다. 장미경은 피로인들의 시에 사대부의식이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특히 정희득의 시에서 사적인 정감이 표출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장미경, 「임란 피로자의 포로체험 한시연구 - 정희득을 중심으로 -」, 『한문교육연구』 2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또 윤인현은 정희득과 정호인의 시에 선비정신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살폈다. 윤인현, 「『해상록』과 『정유피란기』 연구 - 일본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정신 중심으로 -」, 『한문학논집』 32집, 근역한문학회, 2011.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⁵⁾ 이런 방법에서는 일자별로 구성되는 일기의 특성상 계기와 맥락의 파악을 통해 의식지향성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피로인마다 어떤 변별성이 드러나는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피로자의 시를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거기에 드러난 의식의 유사성을 강조하던 기왕의 논의들과는 차별되는 것으로, 피체자라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신분을 지닌 개인들이 전란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감정과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겪는지 통시적·공시적으로 동시에 對比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목적이자 의도이며, 이 논문이 기왕의 논의들과 질적으로 변별될 만한 지점이다.

2. 기억과 일기, 일기 속의 詩

일기는 매일 생각하고 듣고 행동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기억의 저장고이다. 동시에 저장된 그 기억을 장기간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지적이고 역사적인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기억할 필요나 값어치가 없는 것은 기록되지 않으며, 기록으로 남지 않은 기억이 오래 뒤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는 없다. 기억은 기록의 전제이자 목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기가 경험한 사건이나 견문한 사실을 나중에

5) 이것은 김미선이 『해상록』을 검토하면서 사용한 방식이다. 그런데 그는 피로인들의 실기 전부를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일기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의 방법과는 변별된다. 김미선, 「『월봉해상록』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고시가연구』 30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93~120쪽.

기록한 글이라는 점이다. 기록하는 행위는 언제나 실제로 겪은 경험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므로, 특정한 경험을 기록할 시점에는 불가피하게 그 기억이 착각이나 굴절로 인해 다소간 변형될 수밖에 없다. 또 기록자가 여러 기억들 가운데 일부만을 취사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시킬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매일 기록할 수 없는 형편에서 쓰인 일기들에서라면, 기억은 침삭되거나 과장 혹은 축소되거나 뒤섞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는 포로 체험의 생생하고도 절절한 기록이라고 여겨지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다. 포로가 되어 묶인 채 끌려가는 사람이 먹을 갈고 붓을 들어 일기를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기에, 특정한 날에 경험했다고 서술한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착종 또는 굴절된 기억을 바탕으로 적힌 것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끌려가던 기간의 경험을 기록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시기에 기록한 것에서도 착오나 굴절이 나타나기에 문제가 작지 않다. 예컨대 정씨 일족의 실기들과 노인의 『금계일기』에 기록된 날짜들은 그 자체로 자못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다. 정씨들의 글에는 기해년인 1599년 3월이 2번 들어 있다. 즉 두 번째 3월은 윤달이고 그들의 기록에는 모두 윤3월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에 잠입해 있던 중국인 스파이 林震虢을 따라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귀국한 노인의 일기에서는 윤달이 없이 바로 4월로 넘어갔다. 실제로 이 해에는 윤달이 있었으므로, 노인의 일기는 신뢰성에 큰 결격이 생긴다. 그러나 정씨 일족의 기록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해의 윤달은 3월이 아닌 4월이었기 때문이다.⁶⁾

6)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日較陰陽曆』, 1983, 307쪽, 서기 1599년 己亥年條.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실록』의 1599년 기해년의 기사를 살펴보아도 윤달은 4월이 맞다. 이러한 차이가 빚어진 것이 경험 당시에 일력을 계산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지, 뒤에 일기를 정리하면서 잘못된 기억을 토대로 했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금계일기』는 기록된 내용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낸다. 노인이 중국에 상륙한 뒤 귀국하는 길에 여러 날 머문 福州에서 기록한 4월 18~20일 사이는 매우 큰비가 내렸다는 내용 이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다. 이어지는 21일과 22일에는 날씨가 맑았는데 좌영의 말을 듣고 군문도어사에게 바치는 글을 작성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2일의 일기 다음에 18일부터 쓴 일기가 또 이어지는데, 18일은 비가 왔지만 19일과 20일은 개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나온다.⁷⁾ 바로 앞에서는 22일에 도어사에게 바칠 글을 작성했다고 해놓고는, 바로 뒤에서는 그날 平遠臺라는 곳에 올라서 도승들과 만난 내용을 적었다. 시간적인 간격이 짧은 날에도 날씨와 경험한 사건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기에, 그 기록이 사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노인의 『금계일기』에 문자로 정착된 기억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문제는 정씨 일가의 기록에서도 노정된다. 특히 정경득 형제의 일기는 날짜가 겹치는 경우 내용이 90% 이상 일치하기에, 기억의 굴절과 왜곡을 넘어 형제간에 누군가가 다른 이의 것을 베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⁸⁾ 그런데 동생의 기록인 『해상록』이 먼저 알려졌기 때문인지, 기왕의

7) 며칠간 경험한 기억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제다. 4월과 윤4월의 일기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진실성 문제에서는 중대한 결격이 된다. 『금계일기』는 김종오 등이 번역한 『국역 해행총재 IX』의 『錦溪日記 東槎日記』와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가 번역하여 발행한 『금계일기』를 참고했고, 원문은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에서 발행한 책에 첨부된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여 대조하였다. 김종오 외 역, 『국역 해행총재 IX』,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출판사향 미상.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계일기』, 1999.

8) 서문의 간지를 보건대, 그들이 기록한 포로 실기는 사실 귀국한 지 10년 이상 지난 시간에 기록된 것이기에, 경험 주체인 정경득 형제가 직접 비망록을 토대로 정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비망록을 다시 정리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이가 필사했다는 언급은 없지만 직접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연구논문 가운데는 『만사록』보다 『해상록』을 다룬 것이 더 많다. 하지만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기억의 신뢰성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만사록』과 『해상록』의 선후 또는 모자관계를 판단하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⁹⁾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만사록』이 『해상록』에 선행하며 모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근거를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기 편집을 종결하고 쓴 自序를 토대로 보면 일기는 정경득이 먼저 정리한 것이 맞다. 자서를 쓴 것이 정경득은 萬曆 38년인 1610년이고 정희득은 3년 뒤인 1613년이기 때문이다. 정경득의 실기 제목은 처음부터 『만사록』이었지만, 『해상록』은 처음 이름이 『만사록』이었다가 나중에 『해상록』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해상록』으로 고쳐진 까닭은 아마도 정희득의 후손들이 정경득의 『만사록』과 변별하기 위해 제목을 바꾸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희득이 형의 기록과 제목까지 거의 그대로 모사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일기를 쓴 날의 숫자에서 정경득이 월등하게 앞선다.¹⁰⁾ 예컨대 1598년 9월의 경우 정경득은 16일 동안 일기를 썼지만, 정희득은 단 4일치의 기록만 남겼다. 많은 경험 가운데서 기억이 안 나거나 동참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는 쉬워도, 기억에도 없는 내용을 첨

서문은 엄연히 존재하므로, 어떤 것이 선행하고 모본이 되었는지 간에, 현재로서는 그들이 직접 정리하고 정서한 것이라고 간주한 채 접근할 수밖에 없다.

- 9) 이에 주목한 연구자인 이채연은 정희득의 문장력이나 일본인과 화답한 시를 포함하여 창작시가 많다는 이유로, 그의 『해상록』이 『만사록』보다 선행한다고 하였다.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 연구』, 박이정, 1995, 88~94쪽. 김미선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상록』이 『만사록』과 『피란기』를 파생시켰다고 보았다. 김미선, 앞의 논문, 95~96쪽. 김미선의 경우는 내가 다른 논문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해, 다른 논저에서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
- 10) 이을호의 통계에 의하면, 『해상록』에 282일, 『만사록』에 349일, 그리고 『피란기』에 306일치의 일기가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이을호, 「정유피란기 해제」, 『호남문화연구』 5집, 호남문화연구소, 1973, 133~144쪽.

가하거나 없는 경험을 거짓으로 만들어 넣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정경득의 기록이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만사록』이 『해상록』의 모본이 되었을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 특히 이 무렵에는 노인과의 서신 왕래가 이루어지는데, 9월에 노인이 기왕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하자 12월에 다시 노인이 시 2수를 보내온 일이 있었다. 『만사록』에는 정경득이 혼자 있다가 노인의 시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시까지 인용되어 있는데, 『해상록』에서는 해당 일자의 기록이 없다. 시를 받을 때 정희득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기에서 정경득은 꿈속에서 부친을 뵈는데, “네 동생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는 정경득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노인의 시를 받았다는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그러니 정희득이 『만사록』을 베꼈더라도 이 날의 일기에서는 그 사건에 대하여 쓸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일기를 정리할 시점에는 그 날에 있었던 다른 일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서 기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¹¹⁾

셋째, 정희득의 언행에 드러나는 당착 때문이다. 정경득은 일본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거의 시를 잘 못 쓴다며 창화하기를 사양하는 반면에, 정희득은 비록 ‘부득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는 하지만 거의 매번 옹호곤 했다. 예컨대 귀환 도중이던 대마도에서 쓴 1599년 2월 11일 일기를 보자.

11) 『만사록』과 『해상록』에는 9월 9일에 노인에게 답서를 썼다는 동일한 기록이 있다. 다만 『만사록』에는 이 날짜에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날이 처음으로 일본으로 건너온 날이라서 낯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비통해 했다는 말이 더 나온다. 그러나 사실 그날이 일본에 처음으로 건너온 날은 아니다. 포로가 된 것은 1597년 9월 27일이고, 일본 장수 家政의 본진인 阿波州에 도착한 것은 12월 30일이라서, 그 기억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희득은 정경득이 기록한 그 내용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만사록』이 『해상록』에 선행한다는 방증이 된다. 『만사록』과 『해상록』의 원문 및 번역문은 신해진, 『호산만사록』, 보고서, 2015를 참고하였고,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날 사찰 長壽院의 주지 玄規가 그들의 귀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승려 玄蘇에게 드릴 시를 써 달라고 했다. 그런데 정경득은 ‘나는 시를 읊는 사람이 아니라서(余非吟詩之人) 속성으로 시를 짓는 데에 능하지 않아(不能走成), 단지 임금께 불충하고 부모께 불효한’ 내용으로 글을 지어 주었다고 했다. 반면에 정희득은 이 부분을 ‘余非吟詩之人 不得已走成’이라고 적었다. 자신은 시를 짓는 사람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금방 시를 지었다고 한 것이다. 정경득의 말은 그의 일관된 언행에서 볼 때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많은 시를 지었고 여러 번 일본인들과 시를 창화하였던 정희득의 말은 문제가 있다. 나는 이것이 정희득이 정경득의 일기문에서 실수로 ‘非吟詩之人’을 미처 삭제하지 못하고 그냥 베꼈기 때문에 발생한 소치라고 생각한다.

넷째, 정경득 형제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줄곧 한 집에서 거주 하였으므로, 함께 겪거나 견문한 일이 대부분이었을 테니 일기에 그런 사정이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실제로 정경득은 혼자서 겪거나 보고 들은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경험한 내용을 기록할 때는 항상 형제가 함께했다고 적었다. 자신이 함께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동생에게 들은 꿈 이야기라든가 동생을 비롯한 일족이 겪은 일도 충실히 기록했다. 하지만 정희득은 과도할 정도로 늘 모든 일을 마치 자기 혼자서 경험하거나 들은 것처럼 적고 있다.¹²⁾ 처해 있던 상황을 감

12) 예컨대 1598년 8월 5일의 일기에는 포로로 끌려가던 중 창원에서 만났던 나주인 林得儻가 편지를 보내 강항 등 호남 사족들의 피로자 명단을 알려준 내용이 있다. 이에 정경득은 ‘이리의 굴에 목숨을 의탁해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극한 원한은 우리 형제일 뿐(惟我兄弟)이나, 지금까지 구차히 살았으니 그 죄는 천지에 가득하다’는 답서를 보냈다고 하였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을 『해상록』에서는 ‘獨我一人’이라고 하여 자기 한 사람뿐임을 강조하였다.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밟아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형이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로자 신분의 사람에게 보낸 답서임을 생각할 때, 자기 혼자만 지극한 원한

안할 때 정희득의 말은 어폐가 심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형의 일기를 베꼈으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험의 주체를 자기 자신만으로 설정함으로써 야기된 기형적 언사라고 간주하면 아주 쉽게 해명된다.

다섯째, 정경득은 시경체의 4언시 형태로 가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에, 정희득은 5언이나 7언의 근체시에 정서와 뜻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정희득은 일기문 속에 한 번도 그 시들을 넣지 않았으며, 시를 지은 사실조차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정희득은 5언시나 7언시를 쓴 날에도 『만사록』에 수록된 것과 똑같은 4언시를 자신이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컨대 1598년 3월 5일의 기록은 『만사록』과 『해상록』에서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家政의 姨從인 注水라는 자가 찾아와서 연민의 기색을 보이므로 글을 써주었다고 하였고 형제가 똑같이 실제로 4언 4구시를 적어 놓았다. 그런데 그들의 족질인 정호인은 『피란기』에서 이 날 정희득이 7언 절구 2수를 지어주었다고 하며 그 시를 기록했다. 『피란기』를 참조하면, 이날 4언시 형태는 정경득이 쓰고 7언시 2수는 정희득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해상록』에 기록된 정희득의 언사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이지 않은 점들이 자주 노출된다.

여섯째, 정희득은 병중에서도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날짜가 정경득의 것과 일치한다는 데서 오는 문제이다. 정희득은 일본의 포로 수용지인 아파주에 도착한 지 7일이 지난 1598년 1월 6일에 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며 보름 동안을 앓았다. 그는 염병에 걸린 날인 1월 6일의 일기에 ‘余得染病 幾至死域 晦間始甦 以惟疾之憂 戀親之情 又倍平日 自在船上 病死者多 而吾獨不死可怪’라고 적었다. 그리고 완쾌되기 전날인 1월 20일과 완전히 털고 일어나게 된 그 다음 날에도 일기를 기록하였다.

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아독존적이라서 순리에 맞지 않다.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이처럼 일기를 정확하게 적는다는 것도 꼭 낮은 일인데, 하필 일기를 기록한 날이 모두 『만사록』에서의 날짜와 일치하기에 더 문제가 된다. 구태여 일기를 기록할 요량이었다면 앓던 보름 동안 차도가 있었던 다른 날에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형과 동일한 날짜에만 썼으니, 정희득이 나중에 형의 일기를 베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만사록』이 『해상록』보다 선행한다고 볼 만한 근거들은 더 있는데, 이 글은 그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한다.¹³⁾ 『만사록』이 『해상록』보다 선행하는 것이 옳다면, 결국 『해상록』에 기록된 정희득의 기억은 많이 왜곡되었거나 상당한 정도로 굴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상일록』에 그가 쓴 시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 사실과 관련될 것이다.¹⁴⁾ 정희득의 경우에 『해상록』 2권에 있

13) 동일한 근거를 두고 나와 반대로 해석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는 정경득과 정희득이 서로 자기가 지었다고 했던 다수의 글에 대하여, 정호인은 『피란기』에 정희득이 지었다고 적어 놓은 사실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호인이 이미 존재하는 『만사록』 및 정희득이 그것을 베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해상록』만을 참조하고 자신의 초고와 대조하여 정리했다면, 대개의 글을 정희득이 썼다는 그의 말은 사실을 오인한 데서 나온 거짓이 된다. 『피란기』를 통하여 보건대 정호인은 심정적으로 정경득보다는 정희득과 훨씬 가까웠다는 사실이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만약 정호인이 일본에서부터 독자적으로 일기를 기록했고 나중에 『피란기』를 정리할 때도 족속들의 일기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정경득 형제의 실기는 그것들 자체의 정황과 논리만을 비교하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피란기』의 기록만을 근거로 『만사록』과 『해상록』의 선후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14) 『해상록』 권2에는 정희득이 쓴 시들을 모아 놓았는데, 그 가운데에는 일본인들에게 준 것이 적지 않다. 그 중에는 『해상일록』에 실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러니와, 『피란기』에 빠진 것도 있다. 이것은 그가 뒷날 시비 거리가 될 소지를 없애려고 얼마간 왜곡했거나 고의적으로 희석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 물론 『피란기』의 1598년 2월 4일 일기에 기록된 것처럼, 명나라 군사가 영남에 주둔한 왜군을 소탕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쓴 시도 『해상일록』에는 실려 있지 않아, 오로지 편집상의 편의를 위해 일기에서 시들을 모두 제외시켰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가 일기의 문맥 속에서 함께 이해될 때와 따로 논의될 때는

는 시들을 배제하고, 『피란기』에 실린 시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이런 사실과 무관치 않다.¹⁵⁾

정호인은 정경득 형제와 7촌 조카뻘로, 일본에 억류돼 있을 때는 대개 족속들과 행동을 같이했다. 하지만 귀환한 뒤에는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고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했으므로,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만큼 빈번하게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귀환한 지 13년이 지난 1613년경에 『피란기』를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¹⁶⁾ 1613년이라면 정희득이 『해상록』을 정리하고 자서를 쓴 것과 같은 해이다. 만일 정희득이 『해상록』을 갈무리한 뒤에 정호인이 『피란기』를 정리했다면, 정호인이 『해상록』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피란기』가 먼저 정리되었을 수도 있으며, 정호인이 족속들의 글을 읽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기를 정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¹⁷⁾ 그러므로 『피란기』와 정경득 형제가 쓴 실기들의

느낌은 물론 해석과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동일한 사람에게 준 경우에는 언제 쓴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기 속에 포함되지 않은 시를 대상으로 삼아 의식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5) 하지만 1598년 6월 1일과 7일에 부채에 제한 4언시가 2수는 일기에 실린 그의 시 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 2수의 시는 『만사록』에는 없고 『해상록』에만 나와 있는 것으로, 조선에서 자기 집에 심부름하던 아이인 德男에게 준 것과 임진년에 포로로 잡혀와 통역으로 있는 충주 사람에게 준 것이다. 거기에는 각각 일본에 잡혀와서도 주인을 잊지 않는 어린 종을 가르치게 여기는 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모의를 꾸미는 동지에게 서로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 내용은 나중이라도 전혀 책잡힐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굳이 일기문 속에 넣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6) 이을호(1973), 「정유피란기 해제」, 앞의 책, 149쪽.

17) 윤인현은 정호인이 한시 짓기를 거부한 내용이 『피란기』에는 있지만 『해상록』에는 없는데, 이는 정희득이 확절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의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피란기』에는 산문과 한시가 같이 묶여 있지만 『해상록』에는 권을 달리했고, 봄날에 산성에 올라가 지은 망향시가 『피란기』에는 1수로 실려 있는데 비해 『해상록』에는 2수로 전해지고 있어, 『해상록』이 후대에 수정 가필되었을 것이라고도 보았다. 그에 의하면 『해상록』에 기록된 일기는 284일분이고 『피란기』에 기록된 것은 308일분인데 겹치는 날은 228일이다. 이러한 차이들은 『피란기』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정경득 형제의 글만을 비교하며 그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복잡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논의 방향이 전혀 다른 이 글에서는 그 문제를 주된 논점으로 삼지 않는다.

포로 실기를 쓴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뒤부터 일본에 억류되어 있다가 탈출하거나 석방되어 고향에 귀환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대략 3,4년이다. 그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타국인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필답이나 통역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직접적인 방법과 시와 문장에 뜻을 담아 전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통을 하곤 했다. 그런데 직접적인 방식을 통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생각을 교환할 수 있지만, 간접적인 방식을 통할 때는 그 뜻을 읽어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길이가 더 긴 문장으로 쓴 경우에는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뜻을 정리하여 담거나 파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다. 시는 인편을 통해 주고받기도 하지만 즉석에서 창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즉석에서 창화를 하거나 상대의 요청에 응하여 곧바로 시를 지어주는 경우, 그 시에 담긴 정서나 메시지는 그것을 지을 당시의 심정이나 현장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에 포함된 시에는 그것을 지은 사람의 내면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를 그 날에 지은 것이 확실한 이상 시와 관련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은 많이 줄게 된다. 반면에 긴 글로 쓴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일기에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에, 기억이 굴절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인물에게 써주었다고 하는 글의 어조가 사뭇

정리가 『해상록』보다 빨랐거나 혹은 전혀 참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의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 윤인현(2011), 앞의 논문, 142쪽.

다른 것은 바로 기억의 굴절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¹⁸⁾

일기문 자체가 굴절되거나 왜곡된 기억의 산물이라면, 그 속에 포함된 시를 통해서 화자의 의식을 살펴보려는 생각도 결국엔 오십보백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상황을 만들고 시를 새로 써 넣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시를 쓰는 것과 긴 글을 짓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에 결코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나중에 일기를 써넣으면서 그런 특수한 상황까지 조작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거의 현실화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일기에 포함된 시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지은 것이며, 개작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¹⁹⁾ 그러므로 일기 속에 포함된 시를 통해서 詠詩者의 내면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일기에 기록된 다른 내용을 통하여 특정한 의도를 탐색하

18) 예컨대 1598년 11월 8일과 17일에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家政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온다. 『만사록』과 『해상록』에 기록된 그들의 편지는 내용도 짧고 어투도 담담하며 건조하게 도리를 강조하는 글이다. 그런데 그 두 날짜에 보내진 정희득의 편지가 『피란기』에서는 애걸조의 긴 글로 되어 있다. 이는 긴 글로 쓰인 경우에 가필이나 첨삭과 같은 의도적 왜곡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의 방증으로 삼을 만하다.

19) 예컨대 노인의 『금계일기』를 살펴보자. 그는 3월 17일에 중국행 배에 올랐고 23일에 탈출 후 처음으로 시를 썼다. ‘天空海闊夜無邊 浩浩茫茫渾沌天 星月若飛相錯落 分明兩儀未分前’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시가 『금계일기』의 부록에는 ‘山空海闊夜無邊 浩浩茫茫渾沌天 不有衆星垂歷歷 兩儀都是未分明’으로 나온다. 일기에 실린 시에서 화자는 한밤중에 조각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들이 훑날리는 것은 천지가 나뉘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황에 적절히 부합한다. 그러나 부록에 실린 것은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나 섬 근처에서 바라본 하늘이며, 조각달과 별이 없었다면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여 훨씬 심오하고 철학적인 생각을 투영했다. 시인이 선 공간적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우주의 시원을 생각하는 방식에서 둘은 매우 다르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리된 시들에서는 처음에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에서 지녔던 의식이 적잖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이다. 내가 일기문에 포함된 시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계일기』의 부록에 실린 시는 나주 목향도문화연구회가 간행한 앞의 책 150쪽에서 가져왔음.

는 일보다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일기 속에 포함된 시만을 대상으로 삼아 의식지향을 추론하겠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²⁰⁾ 포로 실기들 속의 일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시는 모두 합하여 100수가 넘는다.²¹⁾

3. 시·공간의 변화에 따른 詠詩者의 의식 변화 추이

1) 被擄 後에서 일본 내 거류지 도착일까지

포로 경험을 기록한 피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는 강항이다. 그가 그때의 일을 기록한 글인 『간양록』 가운데 자신의 포로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사적인 글은 「섭란사적」이다. 여기에는 포로가 되었을 때 혹은 그 과정에서 겪은 일에 대해 떠올리는 시 2수가 삽입되어 있다. 하나는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여인이 울부짖다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지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서녀인 애생의 어머니가 울부짖다가 왜군에게 매를 맞고 끝내 굶어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지은

20) 이채연은 『간양록』을 비롯한 포로 실기문학에 삽입되어 있는 시들은 반드시 산문과의 상호관련성 아래서 그 의미 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어, 일반적인 한시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생각은 내가 일기에 포함된 시들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집, 한국문학회, 1992, 69쪽.

21) 강항의 시는 『간양록』의 「섭란사적」에 32수가 실려 있다. 『만사록』에도 강항의 시가 1수 인용되어 있지만 이것은 「섭란사적」에 있는 것과 겹친다. 노인의 시는 『금계일기』에 포함된 27수 외에 『만사록』에 실린 2수가 더 있어 도합 29수이다. 정경득의 시는 『만사록』에 4언시 4수와 5언시 1수, 그리고 『피란기』에 3수가 실려 있어 도합 8수이다. 정희득의 시는 『피란기』에 실린 28수와 『해상일록』에 포함된 4언시 2수 등 도합 30수이다. 정호인의 시는 『피란기』에 9수가 실려 있다. 따라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시는 모두 100수가 넘어서 숫자로는 충분하다.

것이다.

滄海茫茫月欲沈 아득한 푸른 바다 속으로 달은 지려 하는데
 淚和涼露濕羅襟 눈물과 찬 이슬에 옷깃이 다 젖어드네.
 盈盈一水想思恨 넘실대는 물결 속에 상사의 한이 잠겨 있나니
 牛女應知此夜心 견우와 직녀는 응당 오늘 밤 내 마음을 알리라.²²⁾

강항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외중에 적자인 龍과 서녀인 愛生 그리고 조카인 可憐과 첩을 잃었다. 그 자신은 바다로 뛰어 들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고, 처를 포함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채 각기 다른 배에 태워져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런 일련의 충격적인 과정 속에서, 울부짖다가 매질과 굶주림에 지쳐 죽은 첩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바로 위의 시이다. 그런데 첩을 비롯하여 자질들이 억울하고도 참혹하게 죽은 다음에 애절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면에는 화자의 고통이나 상심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淚·涼露·想思·心과 같은 명사 및 沈·濕·恨·知와 같은 동사와 형용사 속에 참척의 고통과 찢어지는 고통의 심정을 뚝뚝 싸맨 채 상황을 냉정하게 감내하고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한다. 그는 가족을 잃은 괴로움을 단지 견우와 직녀의 이별의 한 정도로 가볍게 표현했을 뿐이다. 설화 속에서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자신은 죽은 자질들과 결코 만날 수 없는 영영이별인데도 말이다.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갖는 사적인 감정은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로 볼 때, 이런 의식과 태도는 그가 과도하게 공

22) 이을호, 『간양록』, 서해문집, 2005, 196쪽. 시는 이을호의 번역을 약간 참조하여 다시 번역하였다. 차후에도 이런 방식은 동일하다.

인의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피란 중에 포로로 잡힌 이가 자기 하나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가족이 죽을 때 똑같이 가족을 잃은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전란 중에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행이었기에, 강항은 자기만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도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졌던 공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이후 그가 일본에서 보여준 일관된 모습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는 일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私人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에 충실하기보다는, 공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본국 조정에 몰래 보고하는 삶의 방식을 택했다. 전에 없던 엄청난 국난의 상황이고 자신은 또 피로자라는 딱한 처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벼슬길에 올라 참전까지 했던 공인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멸사봉공의 애국심만이 가득 차 있었던 셈이다.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 형제 등을 포함한 정씨 일가는 1597년 8월 12일에 피란을 나섰다가 9월 27일(『피란기』에는 26일)에 포로가 되었고, 12월 30일에 그들을 포로로 잡은 왜장 森小七郎의 상관인 家政의 본진이 있는 남해도 阿波州에 도착하였다. 포로가 되어 일본에 이송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이들의 시가 『만사록』, 『해상록』, 『피란기』의 일기문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 그들은 석 달 넘게 배에 감금된 채 끌려갔고 그동안 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하거나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느낀 감정과 분노와 좌절감이 시를 통해 적잖이 표현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시는 하나도 없다. 대신 『피란기』에는 일족이 피란을 나선 뒤 미래와 생사가 불투명한 암담한 상황에서 읊은 8수의 시가 실려 있다.

星言掛席向何之 별들이 돛 달고 어디로 가야할지 말해다오
 人待南風風北吹 사람들은 남풍을 기다리는데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니.
 碧海茫茫迷去路 푸른 바다 아득하여 갈 길을 헤매다가
 落帆孤島夕陽時 석양 무렵에야 외로운 섬에서 돛 거뒀다네.

輕檣曉發欲西之 가벼운 돛 달고 새벽에 서쪽으로 가려 나섰는데
 風不爲人小女吹 바람은 사람을 위하지 않아 소녀의 숨처럼만 부는구나.
 一室圖生蒼海付 한 가족 살길을 푸른 바다에 맡겼는데
 茫茫天意未識時 하늘의 뜻은 아득하여 믿지 못할 때로다.²³⁾

인용한 것은 차례로 정희득과 정호인의 시인데, 1597년 9월 17일자에 읊은 것이다. 정호인은 이날 그의 일기에서 늘 族叔이라고 호칭하는 정희득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썼다. 이 날은 일족이 피란에 나선 지 한 달을 넘겼고, 포로로 잡히기 열흘 전이었다. 일기에 의하면 그들은 새벽에 배를 띄워 서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바람 따라 흘러가 전남 영광의 林柄島에 이르렀다고 했다. 범성포 앞바다에는 피란을 나온 배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어서 여기저기 분산되었고, 그들이 탄 배는 임병도에 이르러 유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를 타고 피란길에 나섰으니 그들은 섬과 바다에서만 꼬박 한 달 이상을 떠돈 셈이고, 가야할 곳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단지 왜군이 없는 서쪽을 향해서 무작정 나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그들은 당장 오늘의 운명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런 처지가 시에 온전히 표현되었다.

정희득의 시에는 그들이 새벽에 배를 띄웠는데, 기다리던 남풍은 불지

23) 정호인, 『피란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간(1986), 앞의 책, 14쪽. 시의 원문은 일기에 실린 것을 그대로 인용하지만, 번역은 번역자의 것을 참고로 하되 나의 생각에 의해 고쳤음을 밝힌다.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않고 북풍이 불어 바다를 헤매다가 저녁 무렵에야 외로운 섬에 내리게 된 답답한 상황이 그대로 나타난다. 하늘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절박함을 알아주지 않고,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군에게 포로가 되기 이전이라서 그런지 아직은 공포나 좌절감 같은 절망적인 상태의 심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호인의 시에는 정희득의 것보다 하늘을 원망하는 심정이 더 드러난다. 바람은 사람을 위하지 않고 소녀가 내쉬는 숨처럼 가볍게만 불어온다는 말에는 그러한 원망의 감정이 섞여 있다. 한 가족의 살길을 맡겼는데도 하늘의 뜻은 아득하여 믿지 못할 때리는 표현에 이르면, 그 불안한 마음과 하늘에 대한 원망이 더 노골화된다. 하지만 정호인은 정희득보다 어린데다가 갓 결혼한 연배였을 것을 생각하면,²⁴⁾ 그의 불안감과 하늘을 향한 원망의 감정이 상대적으로 정희득의 경우보다 더 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2) 일본 억류 시기

강항은 일본에 있는 동안 일본인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전수하는 대신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고국에 몰래 보고하기도 했지만, 포로가 된 동포들과 교류하면서 소식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홀로 있으면서 자기의 가슴에 깊이 간직된 감정을 읊은 시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과 주고받은 시보다는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지은 시에 속

24) 정호인은 대략 1579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비정되는데, 사실이라면 포로가 되던 1597년에는 그의 나이는 19세였다. 그는 포로가 될 당시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부인은 포로가 되던 날에 일족의 여러 여인들과 함께 바다에 투신하여 순절하였다. 김명엽, 『『정유피란기』를 통해서 본 정호인의 피로생활과 일본인식』, 전북대 석사논문, 2007, 2~3쪽.

마음이 더 잘 투영될 가능성이 높으니만큼, 그런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그가 통역에게 1598년 2월 5일에 왜장 平義智의 수하 군졸 100여 명이 귀순해왔고 지금도 연달아 투항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감격하여 그 내용으로 시를 읊은 다음에, 봄비가 마음을 적셔준다면서 지은 시이다.

春雨一番過 봄비가 한 번 지나니
 歸心一倍多 돌아가고픈 마음은 갑절로 커지네.
 何時短牆下 어느 때나 고향집 담장 아래에
 重見手栽花 내가 손수 심은 꽃을 다시 보게 되랴?²⁵⁾

그는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고, 백방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 그러던 차에 정월 그믐께 명나라 군사들이 울산에 주둔한 왜군을 크게 무찔렀고, 호남에서도 적의 수중에 있는 것은 순천뿐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닷새 뒤에 일본군들이 계속해서 투항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소식들은 그에게 일본의 패전과 고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으로 이어졌을 터이다. 그런 상황에서 봄비가 내리니 그 비는 따뜻한 봄소식으로 해석되었고 자연스럽게 고향에 돌아가 자신이 직접 담장 아래에 손수 심은 꽃을 보고 싶은 생각까지 떠올랐다. ‘短牆’과 ‘手栽花’는 고향을 떠올리는 구체적인 매개물이었다. 환로를 걷던 벼슬아치로서 늘 임금과 고국산천을 그렸기에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며 더 큰 환란을 막거나 일본에 복수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 고심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직접 심은 꽃을 다시 보는 소박한 소망이 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5) 이을호 역, 『간양록』, 202쪽.

그는 귀국하여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 경국지략을 펼치는 데 뜻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귀국하더라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가 어떻게 포로 생활을 했던 간에,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닌 콤플렉스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찍혀질 부정적인 낙인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에는 그러한 그의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난다.

滿臆千愁若蜜房	가슴엔 천 가지 시름이 벌집처럼 빼곡히 차 있어
年纔三十髮如霜	나이 겨우 서른인데 머리털엔 서리가 내렸구나.
豈緣鷄肋消魂骨	어찌다가 계륵처럼 볼품없는 몰골이 되어
端爲龍顏阻渺茫	바다로 가로막힌 이국땅 끝에서 님 얼굴 그리고 있는가?
平生讀書名義重	평생토록 글을 읽어 명분과 의리 중시했으나
後來觀史是非長	뒷날 역사를 보는 이들의 시비가 길어지겠지.
浮生不是遼東鶴	덧없는 인생이라 학이 되어 신선처럼 날아갈 수는 없으리니
等死須看海上羊	죽은 듯이 바닷가에서 양떼나 돌보리라. ²⁶⁾

위는 1598년 6월에 쓴 시인데, 조선에서 철병한 왜장 佐渡가 강항의 가족을 大阪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지은 것이다. 그는 먼저 일본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겨우 서른 살에 머리가 세고 허약해진 몰골로 이국을 떠도는 신세를 자조적으로 그렸다. 鷄肋은 당시에 강항이 자신의 처지와 쇠잔한 심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중의적 어휘였던 셈이다. 스스로를 계륵 같은 신세로 진단했기에, 그는 평생토록 글을 읽어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살았지만 뒷날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의 이력을 들어 시비를 다룰 것임을 예상하였다. 아마도 首聯에서 가슴에 빼

26) 이을호 역, 『간양록』, 212쪽.

꼭히 차 있다고 한 천 가지 시름 가운데는 사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곧 마음을 정리하고, 죽은 듯이 바닷가에서 양떼나 돌보겠다고 다짐하였다. 양떼나 돌보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소무처럼 이국에 포로로 끌려와 천하게 살더라도 절대로 지조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귀국하더라도 영달을 꾀하지 않고 고향 바닷가에서 낙척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겸퇴 의식의 표현이다.²⁷⁾

1600년 왜장 좌도가 강항의 가족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도록 명하자,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도망쳐서 귀국하였다.²⁸⁾ 일본에 있으면서 얻은 정세와 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 본국에 보고했고, 늘 고향과 임금을 그리는 뜻을 간직하고 지조를 굽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국한 뒤에는 임명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환로를 접었다. 이것은

27) 김기빈은 이 시의 頸聯과 尾聯을 인용하며, 그것은 야만적인 일본과 그들 집권층에 대해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강항의 不撓不屈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하였다. 강항의 생각이 포로 생활을 하는 소무와 같은 충신이 가졌음직한 불요불굴의 의지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환국한 뒤에 벼슬길에 머물지 않고 향리에 은둔하여 제자들을 기르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았기에, 그가 이 시에다가 뒷날 역사를 보는 자들이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겸퇴하겠다는 뜻도 동시에 담았다고 보는 것이 시 자체의 전개 맥락상 자연스럽고 상황에도 부합한다. 김기빈, 『임란시 피부문인의 체험적 문학의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102쪽.

28) 강항의 귀국 경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탈출했다는 견해와 伊豫州의 번주인 좌도의 허락을 받고 돌아왔다는 견해이다. 변동명과 유채연은 강항이 좌도의 허락을 얻어 귀국했다고 하였다. 변동명, 「강항의 필사본 『간양록』 고찰」, 『아시아문화』 12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241쪽. 및 유채연(2012), 앞의 논문, 295쪽.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현종 9년 4월 13일의 『현종실록』에는 탈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같은 날의 『현종개수실록』에는 왜인들의 허락을 받고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왕조실록의 기록에 대하여는 임치균, 「간양록 연구: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8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09쪽에 인용된 두 왕조실록의 기록을 참조하였다. 공적 기록인 왕조실록에서조차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섭란사적」을 토대로 보면 강항은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탈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시에서 토로한 것처럼 뒷날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떠들게 될 시비를 염두에 두고 스스로 죄인을 자처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명분과 의리는 겉으로만 내세우는 허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과 정신을 지탱하는 신조이자 가치관이었던 셈이다.

노인의 일기는 1599년 2월 22일부터 시작되고 1599년 6월 27일에 끝나는 분량만 남아 있다.²⁹⁾ 따라서 포로로 잡힐 때부터 시작하여 일본에 억류되어 있던 기간에 쓴 시는 현전하는 그의 『금계일기』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득이하게 『만사록』에 실린 2수의 시를 통하여 일본 억류 당시의 의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萬死餘生客	만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은 나그네
殊方獨自哀	이국땅에서 홀로 슬퍼하네.
思親淚化血	어버이 생각에 눈물은 피가 되었고
戀主肝成灰	임금님 그리다가 애간장은 재가 되었네.
開口誰知語	입을 연들 누가 말을 이해해줄 것이며
書懷孰憐才	회포를 써낸들 누가 재주를 아까워하리?
依依寒影苦	서성이는 쓸쓸한 그림자 괴로운데
風日盡愁媒	바람과 햇살도 다 시름으로 맺어지네. ³⁰⁾

29) 이는 그의 일기가 현재는 그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유실되었다는 것을 뜻할 뿐, 그 기간에만 일기를 썼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남원성 전투에서 패한 뒤 권율을 찾아가다가 1597년 8월 15일 왜군의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해 포로가 되었으며, 방담진과 안골포와 대마도와 일기도를 거쳐 8월 23일경 시코쿠의 남해도 이에주에 도착하여 일본에서의 포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탈출 시도 끝에 1599년 3월 15일 탈출에 성공했고, 중국을 거쳐 1599년 12월 25일에 한양으로 돌아왔다. 노기욱, 「임란의병장 노인의 일·중편력과 대외복수책」, 『한국인물사연구』 2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317~339쪽.

30) 신해진(2015), 앞의 책, 122쪽. 이것은 『만사록』의 1598년 9월 12일자 일기에 실린 노인의 시인데, 시 번역은 신해진의 것을 토대로 하여 약간 손을 보았다.

이 시를 썼을 때 노인은 남해도의 토좌주에 있었고, 정경득 일행은 아파주에 있었다. 일본 본토 4개의 섬 가운데 가장 작은 시코쿠(四國)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阿波州·伊豫州·土佐州·讃岐州가 있었다. 시코쿠는 워낙 섬이 작았으므로, 가까이 거류하던 그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³¹⁾ 일본 억류 시절 노인은 적극적으로 탈출을 계획했으며 결국에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 시를 지었을 무렵 아직은 피체자 신분이었던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愁’로 대표되는 감정으로 차 있었기에, 9월의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마저도 시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나라를 잃고 부모와 형제 자식이 모두 전란 중 왜군에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충효의식과 시름은 항상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계일기』에 의하면, 노인이 일본을 탈출하게 된 것은 오로지 ‘중국으로 건너가 자기가 탐지한 왜국의 실정을 중국 조정에 아뢰고 일본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을 모두 송환시킨 뒤 복수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³²⁾ 일본에 대한 복수와 충효의식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국인들을 감동시켰고, 끝내는 그들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중국에 알리고 그들의 힘을 빌려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은, 그것이 비록 중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도 일관되게 언급되긴 하지만,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기에 과도하게 내세워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경유하면서 적은 일기의 여기저기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를 그리는 효심이 그의 내면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양대 의식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

31) 이 시를 받기 사흘 전인 9월 9일의 일기에 의하면, 정경득 일행은 노인이 토좌주에 거주한다는 얘기를 어떤 왜인으로부터 듣고서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노인이 답서를 보냈고, 그에 대하여 다시 답서를 보냈다고 한다. 그 답서를 보고 노인이 12일에 시를 써서 보낸 것이니, 그들은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 나주목향토문화연구소, 앞의 책, 14쪽. 1598년 3월 15일의 일기.

다. 그러니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쓴 시에서 ‘아버이 생각에 눈물은 피가 되었고, 임금님 그리다가 애간장은 재가 되었다’고 한 것도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표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가 포로라는 욕을 당하면서도 굳이 목숨을 보존하여 귀향하고자 한 데에도 충성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시의 尾聯에 ‘一治應一亂 待運保衰年’이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한 번 잘 다스려지면 한 번 어지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 차이기에, 시운이 상승하기를 기다리며 쇠약해지는 나이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부모와 형제가 모두 정유년에 왜군에게 몰살을 당한 뒤이고 아직 전란이 끝나지 않은 때라서 그런지, 이때는 그의 의식 속에서 효보다는 상대적으로 충이 더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의 시에 나타나는 정서나 의식은 앞의 인사들과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강항이나 노인처럼 적극적으로 탈출을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을 억류한 왜장 家政을 감동시켜서 석방되는 소극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도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 형제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형인 정경득과 정호인은 일본인에게 상대적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여 시를 지어주는 일을 최대한 사양하였다. 특히 정호인은 그런 일을 극구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섭섭한 기색을 나타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³³⁾ 반면에 그들의 동생인 정희득과 정호례는 상대적으로 온유한 자세를 취하였다. 정희득은 일본인들에게 시를 지어주거나 적극적으로 창화하였으며, 아직 어린 정호례는 책을 베껴달라는 일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금전이나 곡식을 얻었다. 형제들이 각각 임금과 부모가 계시는 고국에 대한 일편단심을 굽히지 않고 비교적 강경한 자세로 일본

33) 『피란기』의 1598년 1월 27일자 일기에는 ‘醫僧 장연이 와서 시를 짓자 하기에 본래 학식도 없고 혈기 또한 쇠잔하여 시를 읊을 뜻이 없다고 거절하니 불쾌한 빛을 보이고 갔다’는 말이 있고, 28일에는 ‘동수좌가 와서 또 시를 짓자고 하기에 어제 장연에게 대한 것처럼 거절하니 실심한 채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다.

인을 감동시키는 방식과 일본인의 요구에 응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온건한 방식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연민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소극적인 방식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어, 포로 실기를 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석방되었다.

解虎藏龍傲俗紛 호랑이와 용이 뒤섞여 싸우는 속세를 능멸하듯
鶴樓窓桂月盈樽 鶴樓 창가엔 계수나무 싹고 달빛은 술 단지에 가득하구나.
去國乾愁無處遣 고국 떠난 덧없는 시름을 보낼 곳 없어
杖藜逕訪吾君 명아주 지팡이 짚고 이끼 낀 길 걸어 그대를 찾아왔소.

高臥雲庵避世紛 구름 낀 암자에 깊이 누워 어지러운 세상 피하여 사니
幾多松月煮茶樽 얼마나 오래 松月 아래서 차 끓이며 지냈으랴.
參僧且復能詩句 참선하는 스님이 시도 잘 지으시니
海外誰知獨有君 바다 밖에서 누가 홀로 그대 있음을 알리오.³⁴⁾

인용된 시들은 정희득과 정경득이 半雲子라는 호를 쓰는 아파주의 고승 東首座의 사찰을 방문하여 쓴 것이다. 『피란기』에 의하면 이날 형제는 동수좌에게 시를 2편씩 시를 지어주었다. 동생이 먼저 읊으면 형이 차운하는 식이었는데, 위의 것은 그 중에 먼저 지은 것들이다. 『만사록』에 의하면 정경득은 그 이후로는 일본인들에게 좀처럼 시를 지어주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응하더라도 충효의식을 깊이 담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구 형태의 4언시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류지인 아파주에 정착한 지 며칠 만에 바로 동수좌를 찾아가 격식에 맞는 시를 지어준 것은 펍 의아하다. 그 이유는 『만사록』의 같은 날 일기에 기록된 다음의 말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34) 『피란기』, 1598년 1월 5일 일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1986), 앞의 책, 22쪽.

일찍이 고승은 아파주에 있으면서도 주모자로서 家政을 지휘한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 감동하도록 하여 가정에게 잘 말해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승려는 우리 형제의 어머니와 처들이 절개를 지켜 죽었으며 부자간에 서로 이별해야 했던 그지없는 슬픈 정황을 듣고서, 자못 감탄하고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고 또 더하여 우리를 후하게 대해 주었는데, 왜인 집에서 부역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승려와 長延이 힘쓴 것이다.³⁵⁾

앞에 인용한 정경득 형제의 시에는 아유하는 뜻이 깊이 배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정경득의 어조는, 뒤에서 시를 짓지 못한다고 늘 창화하기를 사양했던 태도와 견주어 볼 때 매우 이질적이다. 『만사록』에서는 동수좌가 ‘자내고 있는 경내는 고요하고 인적이 드물었으며, 서책들이 사방의 벽에 가득하였고, 화초가 뜰을 메웠으며, 정갈하기가 속세와 절연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시에 그려진 동수좌는 매우 도가 높으며 특히 마지막 글자인 ‘君’에 수렴되는 모습은 거의 신선에 가까울 정도로 고고하다. 아파주의 실력자이자 조선에 출정했던 왜장 가정을 지휘하는 주모자였다면 조선인의 원수라고 간주해도 무방한데, 시에는 그런 뜻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오로지 집에 돌아갈 생각만이 의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본인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아침의 어조를 담는 데 대한 자괴감이나 회의감은 끼어들 틈이 없다. 그는 오로지 동수좌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감동하도록 하여 가정에게 잘 말해서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강항이나 노인이 보여주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차이는 강항과 노인이 이미 벼슬길에 들어서 있거나 진사로서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경력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정경득 일

35) 신해진(2015), 앞의 책, 53쪽.

행은 아직 유생의 신분이었고 왜군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강도가 달랐던 점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³⁶⁾

정호인은 한시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에게는 결코
지어주지 않았으며, 조선인 일가친지의 모임에서만 간혹 시를 짓곤 했다.
다음은 각각 정호인과 정희득의 시이다.

三月高臺雨乍晴	3월의 높은 누대에 비가 잠깐 개이니
應知春入故園靑	봄은 고향 동산에도 푸르게 들었음을 알겠네.
人何有去無歸日	사람은 어찌하여 가기만 하고 돌아오미 없는가?
却羨東風不世情	도리어 동풍이 세상에 정 두지 않는 것이 부럽네.

萬里家山不入樓	만 리나 먼 고향산천이라 누대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長吟回望一搔頭	시 한 수 읊고서 고향 바라보며 머리를 긁네.
西風欲快思鄉眼	서풍이 망향객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
掃盡浮雲爽若秋	뜬 구름 다 쓸어내니 가을처럼 상쾌하구나. ³⁷⁾

정호인은 일본에 억류된 뒤 그들과 창화하는 것은 한사코 거절했으며
굽히지 않으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이날은 피로자 신분의 여
러 동지들이 산성에 올라 망향이나 하지는 계획을 세우고 찾아와, 죽기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돌아가자는 생각이 있다면 바람이나 쐬며 고

36) 이에 대하여 김미선은 ‘충과 효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관념으로 당대의 조선 선비라
면 누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정희득은 이 중 효에만 몰두하고 있었으
며, 이것은 당시 정희득이 관직에 있지 않아서 조정에 대한 신하의 의무에 대해서
벗어나 있었고 조선 백성으로 가졌을 충에 대한 의식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며, 오로지 비극을 겪고 있는 자신에 몰두했기에 그의 일기와 시에는
비극에 처한 개인으로서의 시선과 감상이 들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미선, 『『월봉해
상록』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고시가연구』 30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114쪽.

37) 『피란기』 1598년 3월 15일 일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간(1986), 앞의 책, 32쪽.

향을 바라보려고 했다. 그래서 따라나섰다가 같은 피로자 신분이었던 柳澳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게 된다. 그것이 위에 인용한 2수 가운데 앞의 시이다. 정호인이 산성의 누각에 올랐던 시간은 내리던 비가 잠깐 개이고 하늘이 맑았을 때였다. 그들이 산성에 올랐던 3월 15일은 양력으로 4월 20일로, 한창 초목이 푸르러가던 시점이었다. 그래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향의 산들도 푸를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은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향을 떠나오기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면서 봄바람이 세상에 정 두지 않고 불며 지나치는 것을 도리어 부러워했다. 봄바람이 세상에 정 두지 않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말은 자신은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고향을 잊지 못해 이렇게 상념에 젖어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처음 류오의 시에 차운하면서는 그곳의 풍경만을 노래했을 뿐 고향을 그리는 정을 시에 담지 않았던 정희득도 곧바로 새로운 운으로 고향을 그리는 시를 읊는다. 그것이 두 번째로 인용한 시이다. 고향산천은 만 리나 떨어져 있어 비록 높은 누각에 오른다고 해도 보일 리 없다. 올라서도 볼 수 없다면 오히려 실망감과 안타까움만 더 커질 것이었다. 그래서 누각에는 오르지 않고 밑에서 시를 읊은 뒤 고향 쪽을 바라보며 머리를 굽고 섰을 뿐이라고 했다. 서풍은 고향 쪽에서 불어오는 정겨운 바람으로, 세상에 정을 두지 않는 동풍과는 차별된다. 그 바람이 고향을 그리려는 눈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파란 가을하늘을 보는 것처럼, 상쾌한 마음으로 고향 쪽 하늘을 바라보며 울적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정희득은 조카가 당시 이국에서의 포로 생활에 낙담하고 실의에 빠져 있다는 점과 그 심정을 동풍에 실어 읊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고향에서 온기를 품은 바람이 불어와 망향을 방해하는 구름을 쓸어버렸으니, 절대로 귀향에 대한 희망을

읽지 말자는 위로를 담아서 곧바로 시를 읊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경득 형제, 정호인 형제를 포함하여 정씨 일족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기간에 쓴 시들에는 대개 고향을 그리는 정이 깊이 투영된다. 특히 정희득은 시를 지어주며 일본인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동정심을 사려 했는데, 이것은 모두 생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정경득은 정희득보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지만 반드시 생환하겠다는 절실함 때문에, 시를 지어달라는 일본인들의 요구에 대해 거절하더라도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체시 대신에 경구 형태의 4언시를 써주기도 했다. 반면에 정호인은 족속인 정경득에 비하여 일본인들에게 더 단호하고도 뻣뻣한 자세로 대했다. 얼핏 보기에는 굳이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정호인의 이런 태도는 나이가 어려서 혈기가 왕성했고 또 족속들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어서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들이 보여준 상이한 태도가 일정 부분 그들이 들었던 유언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 일족이 탄 배가 칠산 바다에서 왜군에게 포로가 되던 날, 정경득 형제의 어머니와 부인들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누이동생이 투신을 하여 자진했다. 정호인의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부인도 이때 함께 자결한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자진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남긴 말에는 어조나 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경득의 부인 박씨와 정희득의 부인 이씨는 자진하기 전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당신은 신중히 몸가짐을 바르게 가져 동생(형)과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기필코 살아서 돌아가기를 꾀하세요. 이야말로 대장부가 할 일이니, 간곡히 빌고 또 비나이다.’라는 유언을 남겼다.³⁸⁾ 반면에 정호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너희들은 남자이니 아무쪼록 목숨을 부지하여 종사가 끊기

38) 신해진(2015), 앞의 책, 35쪽. 1597년 9월 27일자 일기.

는 것을 면하게 되면 이 또한 효도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집 뒤 선산 밑에 검장하여라.’라는 말을 남겼다.³⁹⁾ 그리고 이를 뒤 왜적들은 압해도에 정박한 뒤 정경득 형제의 아버지와 아들 및 조카들을 포함하여 늙거나 어린 남자들을 풀어주었는데, 이때 아버지는 ‘너희들은 부디 함부로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피하여라.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다면, 어찌 부자간의 사랑을 위한 행동거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당부하였다.⁴⁰⁾

아버지와 부인이 남긴 그 ‘살아서 돌아가(오)라’는 당부는 정경득 형제의 의식 전부를 지배하는 지상명령이 되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환란을 겪고 있는 국가적인 문제는 큰 관심사가 되지 않았고,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반면에 정호인이 들은 유언은 종사가 끊기게 만들지 않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가 들은 유언의 첫 번째 과제는 살아남는 것이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그가 이해한 유언은 극단적으로 일본에서 같은 피로자 신분의 여성들과 결혼하더라도 종사가 끊어지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고, 다행히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고향땅에서 종사를 잇고 죽은 부모들을 검장해주면 좋겠지만, 혹여 못 돌아가더라도 결코 종사가 끊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족속들의 노력에 의해 부역을 면제 받을 수 있었기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당위는 더 이상 지상과제가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다가 다행히 족속들이 방환될 때 따라서 갈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으니, 고향을 그리며 귀향을 염원하는 의식은 같았더라도 그 열망과 강도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나는 그것이 그들이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나 귀향의식의 절실함 정도에서 차이

39)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간(1986), 앞의 책, 15쪽. 1597년 9월 26일자 일기.

40) 신해진(2015), 앞의 책, 37쪽.

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⁴¹⁾

3) 석방(탈출)에서 한국일까지

강항은 1600년 2월 적장인 좌도가 가족들의 단속을 좀 허술하게 하도록 이른 틈을 타서 왜승 舜首座의 도움을 받고 4월 초에 탈출을 감행한다. 그리고 5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한 뒤 상경하여 임금을 알현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이 9월이었다. 그는 그 기간에 쓴 시 2수를 남겼는데, 아래에 인용하는 것은 4월 2일에 왜경을 떠나 배에 오르게 된 감개무량함을 읊은 시이다.

聖恩遙及窰中囚	임금님 은혜가 멀리 토굴 속의 죄수에게까지 미쳐
絕城歸帆近麥秋	초여름에 왜성을 떠나 귀국선 돛 달게 되었네.
蓬島渺茫滄海關	오랑캐 섬은 이득히 멀어지고 푸른 바다는 막아서지만
却將忠義滿孤舟	도리어 충성과 절의는 외로운 배에 가득차려 하네.

41) 조현우는 ‘나는 왜 살아서 돌아왔는가?’와 ‘나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나?’라는 두 개의 문제의식으로 포로 실기들에 접근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에 대하여 정희득은 ‘글로써 오랑캐를 감화’시켰고 정호인은 ‘항절불굴을 실천’했기에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조현우(2014), 앞의 논문, 189~211쪽. 그런데 『피란기』의 1598년 9월 2일자 일기에는 그들을 도와주던 일본인 醫僧 장연이 찾아와서 ‘방환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阿波守는 정호인이 무식이 아니면서 항절불굴의 뜻이 있기에 방환시키지 말자는 설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호인은 ‘국란에 죽지 못하고 구구히 목숨을 연장시켜온 죄인에게 무슨 항절의 논의 있겠느냐’고 답했다는 말이 나온다. 정호인의 답변을 끝이곧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정호인이 항절불굴의 뜻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기필코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열망이 정경득 형제에 비하여 덜 절실하였고 아직 세상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하였기에 일본인들에게 더 뻔뻔하게 굴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정희득이 보여준 행동과 의식이 정호인의 태도를 상대적으로 더 강경하고도 도드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강항은 포로 실기를 남긴 사람들 가운데 일본에 억류되었던 기간이 가장 길었지만, 귀국하는 데 걸린 기간은 46일로 가장 짧았다. 배가 일기도에 도착했을 때 비바람 때문에 열흘간발이 묶였다가 5월 5일에 출발했는데, 그 기간을 빼면 이예주를 떠나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비교적 순탄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출발할 때는 실제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또 붙잡히거나 사고가 없이 본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지 걱정과 긴장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전혀 그런 종류의 근심이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은이 멀리 적국의 토굴 속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까지 미쳐서 귀국선을 타게 된 감개무량함을 표현했고, 푸른 바다가 아득히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작은 배에 도리어 충의가 가득 찬다고 하였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일관되게 가졌던 임금을 향한 충성심과 공인으로서 가졌던 명분과 절의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1598년 3월 17일 일본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현재 남아 있는 일기를 보면, 노인은 현재 남아 있는 일기가 시작되는 2월 22일 이전에 이미 일본에 와 있던 중국의 상인인 陳屏山과 李源澄에게 탈출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그들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3월 15일 어떤 손님을 초청하고 노인을 소개했다. 탈출에 성공한 3월 17일의 일기를 보면, 그 손님은 바로 복건성의 군 문도어사가 일본에 잠입시켜 일본이 조선을 재침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반간계를 펴게 한 임진혁이었다. 노인은 일본을 출발한 지 12일 만에 중국 漳州의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의 訊防將官에게 중국으로 탈출하게 된 연유를 아뢰고 입국을 정식으로 허락 받았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곳을 거치면서 압록강을 넘어 드디어는 12월에 서울에 도착한다.

그는 중국을 거치는 동안 복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 절차가 번거롭고 허락이 쉽게 내려지지 않아 북경으로의 호송이 유예미결됨으로

써, 4월 9일에 복주에 도착해서 일기가 남아 있는 6월 27일까지도 그곳에서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지 못하였다. 덕분에 그는 복주에서 많은 풍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필담을 주고받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 필담 속에서 그는 중국인들과 일본의 정세는 물론 조선의 문물, 지리, 역사, 풍속 등을 이야기하였고, 또 그들로부터 중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배우거나 얻어들었다. 물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를 창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며 홀로 시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그 가운데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진사 倪士和의 요구에 응하여 지은 것으로, 5월 17일의 일기에 들어 있다.

亂日流離未死臣	난리 통에 정처 없이 떠돌며 죽지 못한 신하라
生還恐得罪人倫	살아서 돌아가도 인륜에 죄 얻을까 두려워라.
瓦全但揖蘇卿志	구차히 살아남은 것은 다만 소무의 뜻을 간직하려 했음 이니
戀國丹誠照鬼神	나라를 그리는 붉은 정성은 귀신도 비추리라.
吞聲無日不悲啼	소리 삼키며 슬피 울지 않은 날이 없었기에
歸夢長勞錦里溪	돌아가는 꿈에선 늘 고향마을 냇가에 이르러 지쳐버렸지.
未知骨肉誰存沒	골육 중에 누가 죽고 살았는지 알길 없으니
哀恨常增落照西	애통함은 늘 서녘에 해질 때 더해지는구나. ⁴²⁾

두 편의 시는 각기 임금을 향한 것과 골육을 향한 것으로, 일관되게 그의 의식을 지배한 충효를 표현하였다. 첫 번째 시에서는 전란 중에 君父를 위해 죽지 못했기에 살아 돌아가도 인륜에 죄를 얻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진하게 투영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구차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42) 『금계일기』, 1598년 5월 17일의 일기에 포함된 시.

소무가 긴 세월 동안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절의를 따른 것
이러서 그 마음을 귀신도 알 것이라고 했다. 늘 임금과 부모를 걱정했으
면서도, 귀국한 뒤에 그는 환로를 접은 강항과는 다른 방식의 처세를 하
여 문인의 길을 접고 무인의 길을 걸었다.⁴³⁾ 무과에 급제하고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게 된 것이 그것이다.⁴⁴⁾ 두 번째 시에서는 고향
에 대한 그리움과 골육의 안위를 걱정하는 심사가 짙게 표현되어 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소리를 삼키며 울지 않은 날이 없었기에, 고향으
로 돌아가는 꿈에도 늘 고단하여 고향마을 근처의 냇가(錦溪)에 이르면
지친다고 했다. 골육의 안위와 존몰을 알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꿈에서조차도 두려워 고향집에 차마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⁴⁵⁾ 비록 중국인들과 금방 친해졌다고 해도 처음으로 시를
써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정도의 심정을 지녔음을 보여준 것은, 자신
의 의식 속에 충효와 복수심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43) 예컨대 5월 6일에는 꿈에 부친을 뵈었다고 하면서 쓴 시가 2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가 무인의 길로 바꾸게 된 계기를 짐작하게 된다. 특히 두 번째 시의 3,4행에는 그러
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망향객의 머리털은 언제 희어졌는가?/깊은 밤 이국땅에
흘뿌리는 비는 차갑기만 하네. 기억컨대 고국의 꿈이 분명했나니/슬픈 눈물 줄줄 흘
러 견딜 수가 없구나(思歸客鬢何時白 三夜蕭蕭楚雨寒 記得分明故國夢 不堪悲
淚自漣漣)’·‘새벽꿈에 조정에서 임금님을 뵈옵고/깨어나서 감격의 눈물 베개를 적
셨네. 임금은 욱되고 집안은 망했으니 한 하늘 일 수 없어/비린 먼지를 일시에 시원
하게 쓸어 없애리(曉夢瑤墀拜至尊 覺來感淚枕成痕 主辱家亡不戴天 快雪腥塵一
時盡)’

44) 그는 38세인 1603년에 실시된 勤武科에서 將薦으로 뽑혔고, 1604년에는 임난 후 최
대 해전인 당포해전에서 통제사 이경준 휘하의 진용교위로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고
한다. 노기욱(2012), 앞의 논문, 308쪽.

45) 실제로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향리에는 부인 제주 양씨만 있었고, 두 아들의 종적
은 묘연했으며, 양친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노인은 무의식 속에서 늘 이러한 불길
한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가 돌아온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기욱(2012), 같은 논문, 같은 쪽.

것이라 하겠다.

다만 탈출할 때는 나라와 임금과 복수심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중국에 상륙한 뒤에는 부모를 더 많이 언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일기에서만도 부친 혹은 부모형제를 만나는 꿈을 꾸었다는 기록이 20번 넘게 나온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바람과 부모의 생사와 안위를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꿈에서 부모를 자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물론 중국에서의 일정이 계속 지체됨으로써 과연 무사히 돌아가게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더해졌을 수 있다. 그는 중국인들과의 대화나 그들과 창화한 시 속에서 표면적으로 그리고 명분상으로는 늘 임금에 대한 충성과 복수심을 강조하였지만, 의식의 심연 속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깊이 응어리진 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 형제를 포함한 일행이 아파주를 떠난 것은 1598년 11월 22일이었고, 비교적 순탄한 항해를 거쳐 대마도에 도착한 것은 12월 21일이었다. 일본 아파주에 억류되었던 기간이 만 1년도 되지 않았으니 대마도까지 오는 동안은 매우 희망에 부풀었을 것이고, 또 정식으로 석방이 되어 귀환하는 중이니 다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생존책을 찾던 대마도주 平義智가 倭京인 京都에 오래 머물면서 전쟁 후의 강화 문제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 6개월이나 대마도에 발이 묶이는 의외의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포로 실기를 남긴 사람들 가운데 일본에서 별다른 육체적인 고통이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가장 빨리 석방되었지만, 돌아오는 과정에는 누구보다도 심적인 고통을 겪으며 정신을 고갈시킨 뒤에 귀환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임진년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대마도에 거주하고 있던 禮賓寺

書吏 출신 朴壽永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자주 식량이 떨어져 쑥을 뜯거나 고사리를 캐서 연명해야 하는 딱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니 아파주에 억류돼 있던 11개월 동안 겪은 고통보다 대마도에서 6개월간 겪은 고통과 절망감이 훨씬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더구나 풀려나서 귀국하는 길이고 부산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예상치 못한 고초가 이어지자 이들의 상심과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그러한 심정은 이들이 대마도에 머물 때 지은 시들에서 잘 나타난다.

啼血還吞素不肥	울며 토한 피 도로 삼켜도 살이 붙지 않고
千年尙痛不如歸	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 붙여귀만 사무쳐 외네.
中宵如訴羈縻客	밤중에 속박된 나그네에게 하소연하는 듯하니
聽此不堪欲奮飛	이 소리 듣고는 떨쳐 날아가고픈 심정 견딜 수 없네.

弟兄皆瘦孰能肥	형제들 모두 여위었는데 누가 살찔 수 있으랴?
夜牛鵲聲勸客歸	한밤중 두견이 소리는 나그네에게 돌아가라고 권하네.
挾彈漆兒多害物	총탄 가진 검은 아이들 해치는 일 많으니
月明村樹莫飛來	달 밝은 때 마을 나뭇가지에는 날아오지 말거라. ⁴⁶⁾

앞의 것은 정호인의 시이고 뒤의 것은 정희득의 시인데, 일행이 대마도에 머문 지 석 달도 더 지난 1599년 3월 29일에 쓴 것이다. 이 날 밤에 두견이 우는 소리를 듣고 정호인이 시를 읊자 정희득이 차운을 했다. 정희득은 『해상록』에서 이 날 ‘두견이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마다 처량하고 애를 끊게 하기에 슬픈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杜鵑詞를 지었다’고 하였다.⁴⁷⁾ 두견이는 그 울음소리가 ‘不如歸’처럼 들린다고 하여 붙여귀라고도

46) 『피란기』, 1599년 3월 29일자 일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간(1986), 앞의 책, 77~78쪽.

47) 『해상록』, 1599년 3월 29일자 일기. 『해상록』의 원문은 신해진(2015), 앞의 책, 186쪽.

불리는데, 실향객의 심정을 지시하는 환유적 소재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새이다. 불여귀란 문자 뜻 그대로 하면 ‘돌아감만 못하다’이니, 결국 돌아가고 싶다는 실향인의 절실함을 대변하는 새인 셈이다. 두견이는 우리나라에서 빠꾸기 또는 소쩍새로 번역되는데, 밤중에 운 새라면 틀림없이 주행성인 빠꾸기가 아니라 야행성인 소쩍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소쩍새 소리는 낮고 탁하며 처량한 느낌을 주기에, 밤중에 나그네의 외로운 심사와 고향을 생각하는 감정을 자아내게 하는 데는 제격이다. 더구나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돌아가게 된다는 소식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두견이 울음을 곧장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들이 당시에 얼마나 속을 태우고 괴로워했었는지는 넉넉히 짐작할 만하다.

대마도에 묶여 있는 동안에 들었던 새 소리는 이들의 심정과 의식을 대변하는 매개물로 또 다시 등장한다. 그것은 앞의 시를 쓰고 50여 일 지난 1599년 4월 22일자 일기에 나온다. 밤에 죽으려는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처량한 나그네의 감정을 이입시켜 지은 시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희득이 먼저 읊고 정호인이 차운을 했다.

終宵欲死緣何事	밤새도록 죽으려 하니 무슨 일 때문인가?
未死羈人怨一般	죽지 못한 나그네의 원한도 일반이라네.
願死餘生猶未死	죽고 싶으나 여생이 있어 아직 죽지 못하니
聲聲和月滿空山	소리마다 달빛과 어울려 빈산에 가득하구나.

此身求死猶延命	이 몸이 죽기를 구했으나 아직도 목숨이 이어지니
與汝哀鳴恨一般	슬피 우는 한은 너와 일반이로다.
旣脫網羅還鎖籠	이미 그물을 벗어났는데 또 다시 새장에 갇혔으니
只今魂夢越江山	오늘도 꿈길에 내 넋만이 고국으로 달려가겠지. ⁴⁸⁾

새가 죽으려고 한다는 것은 새의 울음소리가 슬펐다는 뜻인데,⁴⁹⁾ 엄밀히 말하면 새가 슬프게 운 것이 아니라 새 소리가 슬픈 울음소리로 들린 것이다.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들은 밤마다 편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늦도록 뒤척이며 신세한탄을 하는 일이 많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는 중에 새 소리를 슬픈 울음으로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시를 읊는 데로 이어졌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날짜의 일기가 『해상록』에는 빠져 있고 『만사록』에는 나오는데, 정경득이 새소리를 듣고 했다고 한 말의 취지는 정희득의 시에 있는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다.⁵⁰⁾ 이렇게 된 원인이 형제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워낙 비슷했기에 그렇게 된 것인지, 형이 한 말을 듣고 동생이 그 취지로 시를 읊었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동생이 읊은 시를 형이 산문으로 다시 펼쳐 적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대마도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들의 감정은 더욱 예민해지고 마음은 한이라는 부정적인 감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점이다. 정호인이 차운한 두 번째 시의 제3행에는 특히 그가 자신들의 신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그물을 벗어났는데 또 다시 새장에 갇히게 된 새의 처지가 그것이다. 벗어난 그물은 그들이 일본의 아과주에서 家政의 포로로 억류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다시 갇힌 새장은 대마도에서 발이 묶여 귀환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처지를 뜻한다. 그가 대마도에 억류돼 있는 상황을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고 인식한 사실로부

48) 『피란기』, 1599년 4월 22일자 일기.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간(1986), 앞의 책, 84쪽.

49) 이 말은 증자가 자신이 병으로 죽어갈 때 문병을 왔던 노나라의 대부 중손씨에게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합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鳥之將死 其鳴也哀 人之將死 其言也善’ 『논어』, 「태백 편.

50) 그는 새 소리를 듣고 ‘欲死緣於何 未死羈人 怨亦一般夜 願死此生 猶爲未死 哀彼聲聲 和於空山月也’라고 하였다. 신해진(2015), 앞의 책, 206쪽.

터, 그가 그 시기를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견뎌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밤에 우는 새였다면 소쩍새나 부엉이 같은 올빼미과에 속하는 작은 야행성 맹금류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들은 밤에 사냥하는 조류이므로 실제로는 그들이 우는 소리가 죽으려고 우는 것인지, 짝을 찾기 위해 우는 것인지, 사냥감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우는 것인지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모두들 그 소리는 새가 죽으려고 슬프게 우는 소리라고 받아들였다. 이것은 현재 그들의 의식상태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며, 그 불안과 초조와 절망스러움이 일행들 모두에게 전염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고국을 지척에 두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비친 모든 유정물들의 소리는 망향의식을 더 가중시키는 반면에, 희망은 점점 소멸시켜가는 부정적인 매개였던 것이다.⁵¹⁾

4. 결론

이상에서 정유재란 때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이들의 실기 속에 포함된 한시를 분석하고, 그들의 의식이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방법상으로는 포로가 되기 전후에서 일본 내 거류지 도착일까지, 일본 억류 시기, 석방(탈출)에서 환국일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고, 그 사이에 지어진 시들을 대비 검토하였다. 그들은 피로 전후에서부터 일본의 거류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51) 장미경은 정희득이 ‘자신의 처지를 상기시켜 동병상련의 슬픔을 자극하는 사물들을 시화하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새’라며,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채 자유자재로 하늘을 나는 새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하였다. 장미경(2003), 앞의 논문, 288~9쪽.

가족이나 동포들의 처참한 죽음과 극심한 고통을 많이 목격했다. 일본에 거류하는 동안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인들과 접하였으며, 같은 처지의 피로인들과 서신 또는 직접 왕래를 통해 교류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일본에서 연명하는 방식은 물론 일본을 떠나 귀국하는 방식과 일정이 사뭇 달랐기에, 그 기간에 지어진 시들에 투영된 의식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다.

피로 전후부터 일본의 거류지에 도착하기까지 지어진 시들은 몇 편 남아 있지 않다. 가장 처참한 심경이었고 가족이나 동포들이나 겪은 참상을 목도했기에, 시를 읊었다면 당연히 그런 심정이 깊이 투영되었을 것임에도 말이다. 노인의 경우는 일기가 유실된 관계로 남은 것이 없어 실상이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본에 끌려가는 동안 일기도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壹岐島望故國有感>의 일부가 『금계집』에 있어 포로로 끌려가며 느낀 수심은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강항의 시에는 사적인 감상이나 고뇌는 최소화되고 담담하게 상황을 감내하는 절제심이 뚜렷이 나타난다. 나는 이것이 그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자의식을 과도하게 지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정희득과 정호인의 시는 피란 중에 지은 것이 남아 있는데, 미래를 알 수 없는 데 대한 불안감과 원하는 방향으로 피란을 할 수가 없는 데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깊이 스며들어 있다.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 지어진 시 가운데, 노인의 것은 정경득에게 보내 『만사록』에 실리게 된 2수가 전부이다. 여기에서 노인은 시름과 함께 굳이 목숨을 보전하고 돌아가 임금께 충성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을 투영했다. 강항은 일본에 억류돼 있을 때 지은 시에도 항상 고국에 대한 충성심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가 되었다는 이력이 훗날 그의 삶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을 예상하며, 절의를 지키되

한국한 뒤에는 조용히 은거할 생각을 시에 담기도 했다. 고향집의 담장 밑에 손수 심어 놓은 꽃을 보고 싶어 하는 생각은 그것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정경득 형제와 정호인 형제는 전자들과 달리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력자들에게 동정심을 사서 석방되는 길을 택했다. 그들은 충성심이나 명의를 중시하는 선비정신과 같은 것을 삶의 절대 가치로 삼지 않았고, 오로지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가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여겼다. 그래서 시에는 고향과 부모를 그리는 의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석방되거나 탈출하여 한국하는 과정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차이가 있다. 노인은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탈출하였고 내륙을 따라서 북상한 뒤 압록강을 건너 귀국하였다. 일본을 탈출하려고 중국인의 도움을 청할 때나 중국에서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도 드러나게 충성심과 복수의 감정을 탈출 동기로 내세웠지만, 내면에서 깊이 작용한 의식은 부모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였다. 강항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하였다. 탈출하여 돌아오는 기간에 지은 시에도 사적인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오로지 성은이 멀리 토굴 속에 갇힌 자신에게까지 미친 데 대한 감개무량함과 이로 인해 갖게 된 충성심과 절의만이 투영됐을 뿐이다. 정경득 일행은 돌아오는 과정에 대마도에서 6개월 동안이나 발이 묶이게 되는데, 고국을 지척에 두고 발이 묶여 한국이 요원해짐에 따라 시에도 초조함과 절망감이 깊이 투영된다. 특히 밤에 우는 새에게서 귀향하지 못하는 불안한 의식을 끄집어내거나 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금까지 포로 실기들 속에 포함된 한시에 투영된 의식이 시간·공간이 변함에 따라 어떤 변모를 거치는지 고찰함으로써, 평면적이고 공시적인 방식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피로자들의 삶과 의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별로 검토하는 것보다 포로 실기를 쓴 모든 인물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피로자라는 공통된 신분과 경험

속에서 지냈던 서로 다른 의식의 차이도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자부한다. 지면관계상 더 많은 시들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조망을 통하여 피로자의 차별적인 의식들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기 속에 기록된 편지 등의 산문이나 대화 자체만으로 피로자의 의식을 검토했던 이전의 논의들과는 분명히 변별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전의 논의들에서 한층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종오 외 역, 『국역 해행총재 IX, 금계일기 동사일기』,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출판사향 미상.
- 나주목향토문화연구회, 『금계일기』, 1999.
- 『논어』
-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日較陰陽曆』, 1983, 307쪽.
- 신해진, 『호산만사록』, 보고서, 2015.
- 이을호, 『간양록』, 서해문집, 2005.
- 『조선왕조실록-선조실록』
- 함평군향토문화연구회, 『정유피란기』, 1986.
-
- 김기빈, 「임란시 피부문인의 체험적 문학의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1집, 한국한문학회, 1998, 85~112쪽.
- 김명엽, 「『정유피란기』를 통해서 본 정호인의 피로생활과 일본인식」, 전북대 석사논문, 2007, 1~47쪽.
- 김미선, 「『월봉해상록』의 서술 특성과 작자 의식」, 『고시가연구』 30집, 한국고시가학회, 2012, 93~120쪽.
- 노기욱, 「임란의병장 노인의 일·중편력과 대왜복수책」, 『한국인물사연구』 2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4, 317~339쪽.
- 변동명, 「강항의 필사본 『간양록』 고찰」, 『아시아문화』 12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239~251쪽.
- 유채연, 「임진왜란기 피로인들과 그들의 기록」, 『인문과학연구』 3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209~207쪽.
- 윤인현, 「『해상록』과 『정유피란기』 연구 - 일본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정신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2집, 근역한문학회, 2011, 139~173쪽.
- 이을호, 「정유피란기 해제」, 『호남문화연구』 5집, 호남문화연구소, 1973, 133~149쪽.
-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집, 한국문학회, 1992, 49~74쪽.
-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 1995, 1~334쪽.
- 임치균, 「간양록 연구: 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83호,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2001, 105~127쪽.

장미경, 「임란 피로자의 포로체험 한시연구 - 정희득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20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3, 267~294쪽.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집, 한국고전번역원, 2013, 5~40쪽.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간양록』·『월봉해상록』·『정유피란기』를 대상으로」, 『민족문화사연구』 54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185~215쪽.

ABSTRACT

A Study of the Speaker's Consciousness at Chinese Poetry
in the True Record Literature by POW during Jeong-yu-jae-ran

Cho, Yong-ho

This paper examines the speaker's consciousness projected at Chinese poetry, which was included in the true record literature written by Korean prisoners during Jeong-yu-jae-ran. For this purpose, I divided into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hange of time and space, and I observed the change of the speaker's consciousness in the poems written in each period. The object of examining was confined to the poems included in the literature of diary type, because it was thought that the memory of the speaker was refracted the least in the poems included in the true record.

The poems, which were written from the time before and after becoming captive until the arrival at the Japanese settlement, were only recorded by some people. Among them, the poems of Gang-hang minimized the private sentiments and anguish and distinctly expressed a moderation that endured the situation in a disinterested attitude. The poems that were written by Jeong-Hee-deuk and Jeong-Ho-in during the eruption were filled with anxiety about the future, resentment, and regret about nature that did not help them.

Among the poems that were composed in Japan, No-In's poetry represented the consciousness that he wanted to be loyal to the king and take revenge on Japan after returning home. When Gang-Hang was detained in Japan, he always brought his loyalty to the fore of the poems. Nonetheless, he anticipated that his past would invoke dispute in the future, so he revealed thought that he would live in seclusion after returning home. Jeong-Gyeong-deuk's family regarded only the return as the supreme task. Their poetry showed solely yearning for parents and

home.

Among the poems that were written during the process of returning home, No-In's poetry had a profound reflection of worries and anxieties about his parents and brothers. Gang-Hang clearly expressed infinite deep gratitude for loyal favor he received during the captivity and revealed the loyalty and fidelity to the king. Jeong-Gyeong-Deuk and his group were deprived of means of transit for six months in Daema-do(Tsushima in Japan) during the return journey. As a result, the poetry was deeply immersed in irritability and despair. In particular, they personified the consciousness of the displaced by the bird crying at night.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 could understand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the captive from more diverse angles. This study has a clear significance in that it has a different perspective and value that it has examined the consciousness of prisoners not only by a prose, such as a letter, or conversation but also by poetry in the literature of diary type.

Key Words memory, true record literature, consciousness, *Gan-yang-rok*, *Geum-gye-il-gi*, *Ho-san-man-sa-rok*, *Weol-bong-hae-sang-rok*, *Jeong-yu-pi-ran-gi*

논문투고일	: 2019.04.15
심사완료일	: 2019.05.13
게재확정일	: 2019.05.20